

8년 미해결 고충민원 해소로 6백억원 조선소 투자 실현

고용·산업 위기지역인 대불산단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道 주도로 유관기관과 기업이 협력해 장기고충 민원 해소 및 1천여명 고용창출 !!

※ 부지매입('12, '66억원)→인허가 불허('16.~'19, 2회)→투자실현('20.~, 612억원, 1천명)

□ 추진배경

- 전남 서남권 지역경제의 중심지인 대불산단은 조선업 침체에 따른 산업위기로 생산·고용이 지속 감소, 고용·산업 위기지역 지정('18.~)
 - 생산(조원) : ('12.) 3.1 → ('15.) 2.3 → ('20. 6.) 1.0 ※ 35%(1.1조원) 감소
 - 고용(천명) : ('12.) 14.3 → ('15.) 11.1 → ('20. 6.) 7.3 ※ 51%(7 천명) 감소
- 산단과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가 절실한 상황이지만, 해당부지는 선박 제품의 육·해상 출하가 불가해 수년간 공장건설 지연
 - (육상) 전면에 철길 / (해상) 항만운영과 안전문제로 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 불허

□ 주요내용

- ① 투자기업 조선소 부지 매입 및 기반시설 공사 : '12.~'15.
 - 투자비 : 6,628백만원(부지 4,970, 성토공사 308, 설비 등 1,350)
- ② 조선소 건립, 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 불허(기관 2회) : '16.~'17.
 - (기업) 철길로 육상운반 불가, 해상운반 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 필요
 - (기관) 인근 유류부두 안전문제와 장기적인 항만 운영을 고려해 불허

⇒ 선박 제품 출하를 위한 공유수면 점·사용 불허로 대규모 조선소 건설 불가

- ③ 민원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(수회) : '19. 1.~12.
 - (관계기관) 도(혁신경제과, 해운항만과, 지역계획과), 목포해수청, 영암군, 산업단지공단, 목포해양대학교, 민원 및 관련 기업 등
 - (주요내용) 해상교통 영향(용역), 안전대책 등 해결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
- ⑤ 공유수면 점·사용 신청 및 허가 통보(허가기관) : '20. 1. 14.
 - 조선소 건립 및 선박 출하를 위한 선박진수용 선가대(Slip way) 설치
- ⑥ 투자계획(612억원) 확정 및 도와 업무협약 체결 예정 : '20. 2.~12.

□ 추진상 문제점 및 극복사례

- 해당 인허가 기관에서 불허 처분한(2회) 장기 미해결 고충 복합민원
 - (투자기업) 정부에서 분양한 부지에 조선소 건설 불가, 경영 애로 호소
 - (허가기관) 유류부두 안전문제와 장기적인 항만운영을 고려해 허가 불가
 - (인근기업) 조선소 건립으로 인한 유류부두 안전문제 발생을 우려해 허가 반대

⇒ 정부, 지자체 기관 및 기업과 끈질긴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 마련으로 민원 해소

- (관련기관) 국토부, 해수부, 해수청, 전남도(혁신경제과, 지역계획과, 해운항만과), 영암군, 산단공, 대한, 기업 등 20여개 기관·기업
- (민원해소) 이해관계가 첨예한 관계기관과 간담회 및 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관간 이견을 보완·조율해 협의안 마련

⇒ 유류부두 안전문제와 항만 운영관리 지장 등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점은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및 기업의견을 반영해 개선방안 마련

- (연구용역) 목포항 내 선박선가대 설치 해상교통 영향 연구(목포대)
- (기관자문) 조선소 건립에 따른 인근 유류부두 안전관리대책 수립

⇒ 고용산업 위기와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적극 협력해 민원 해소

- ① 관계기관 회의 → ② 개선방안 마련(용역, 자문, 기업의견, 타사례 등)
③ 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(정부) → ④ 민간기업 투자(계획수립, 투자협약)

□ 주요성과

- 선박진수시설(SLIP-WAY) 설치 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 통보로 대불산단 입주기업의 장기 고충민원 해소
 - 인허가 기관과 안전문제 등 현안사항 해소를 통해 최종 인허가 결정
- 대규모 민간투자 실현으로 조선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
 - (민간투자) '20~'23, 조선업 공장 신증설 612억원, (고용창출) 973명 기대